

광주시, 지난해 국고보조금 215억 반납

최근 5년간 가장 많아...국비·시비 매칭사업 차질 빚어 월봉서원 복합관 건립 20억·수영대회 일부사업 27억 등

지난해 광주시의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215억원으로, 최근 5년간(2015~2019)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3898억원을 포함해 총 6조17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215억원이었다. 앞서 광주시의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2015년 26억7000만원 ▲2016년 93억

5000만원 ▲2017년 52억4000만원 ▲2018년 18억7000만원이었다. 이는 최근 5년간 광주시의 국고보조금 반납액 중 지난해가 가장 많았던 셈이다. 보조금 반납이 많은 것은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의회는 지적했다. 보조금 반납에 따라 국비와 시비 매칭 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 월봉서원 문화예술체험복합관 건립·운영 사업은 부지 매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국비 20억원을

모두 반납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도 시설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7억6700만원을 반납했으며, 이에 따라 시비 매칭비도 2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에서 안전 종합시스템 구축 등 일부 사업을 마치지 못하면서 국비 27억원을 반납했다. 아이돌분지원 83억6000만원, 장애인 활동급여지원 66억9000만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59억5000만원 등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돌려졌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최근 5년간 집행잔액 비율이 2015년 14.3%에서 매년 2~5%씩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28.4%까지 올랐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이 1.8%에 비교하면 무려 15배가 넘는 수치다. 지난해 7월 인상된 하수도요금이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이뤄지면서 집행잔액 비율이 증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국고보조금이 광주시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중앙 정부의 결정에 의해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 뒤늦은 교부로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하지만 반납액이 갑자기 늘어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보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 나선다

일자리·4차산업·청년·안전 등 92개 사업 대상...6월 말 확정

광주시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에 나선다. 광주시는 10일 오후 2시 시청 협업회의실 및 다목적회의실에서 92개 세출예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1대1 대면 컨설팅을 실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 4월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107개 세출예산사업을 접수 받았으며, 광주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평가 센터와 논의해 일자리, 4차산업, 청년, 안

전 등 92개 사업을 1차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의 컨설팅을 추진했다. 컨설팅은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여부,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여부 등 6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광주시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의결절차를 밟아 2020년 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강영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 직무대리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성인지적 감수성 향상과 전문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의 컨설팅을 강화하고, 담당자의 성인지적 감수성 향상 교육을 확대해 양성 평등한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제구역 첨단업 법인세 감면 요청 이용섭 광주시장

이용섭 광주시장은 10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첨단 업종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영상 회의로 진행한 제2차 확대 무역전략 조정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이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 신산업 거점이 되는데 필요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또 광주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시설 투자에 한정하지 말고 문화 콘텐츠 창작활동 인건비도 대상에 포함해 줄 것도 추가로 요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이용섭 광주시장이 10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광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주)디엑스엠과의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치과 의료기기 제조 디엑스엠, 광주로 본사·공장 이전한다

'치과용 믹싱팁' 국내 유일 특허 광주시·디엑스엠 업무협약

국내 유일의 치과용 믹싱팁 국제특허를 보유한 고품질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기업 (주)디엑스엠이 본사와 생산공장을 광주로 이전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0일 오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정두락 (주)디엑스엠 대표 이사를 만나 '광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시장은 "우수한 기술의 치과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을 지닌 광주시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주)디엑스엠이 만나 협력하면 양 기관 모두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에 터를 잡은 (주)디엑스엠이 중견기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주)디엑스엠은 광주시에 주력제품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본사 이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미래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공 지능 기반 생산공정 고도화, 기술개발 등 다양한 기업지원에 나선다. 양측은 또 광주 의료산업이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술 개발 등에 협력하고, 의료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프로그램 발굴 등도 추진한다. (주)디엑스엠은 경기도 고양시에 본사를

두고 광중합기, 구강카메라, 무영등 등을 생산하는 고품질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 기업이다. 주력 생산제품은 치과용 믹싱팁으로, 국내 유일, 세계 두번째로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치과용 믹싱팁은 치과에서 치아를 본 뜰 때 사용하는 인상재를 정밀하게 혼합해 주입시키는 1회용 소모성 치과 도구다. 디엑스엠은 스위스 기업(Sulzer)이 95% 수준으로 거의 독점 중인 믹싱팁 점유율을 3년 내에 15%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디엑스엠은 광주 테크노파크에 생산공장을 구축하고, 오는 2022년까지 본사를 광주에 이전할 계획이다. 정두락 (주)디엑스엠 대표이사는 "20년간

쌓은 의료기기 개발·생산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의 높은 문턱을 넘기 위해선 인공지능과 생체의료산업 중심 도시인 광주를 최적지로 생각했다"면서 "본사 및 공장 이전을 통해 의료산업의 발전과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디엑스엠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유망 기업 유치와 육성을 통한 기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생체의료산업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기업의 전주기 지원 플랫폼 등을 구축해 2030 글로벌 메디시티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치과를 중심으로 한 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국내 최대 치과 클러스터인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와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 등 핵심 기반을 구축해 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야생동물구조센터 수달·삵 등 463마리 구조

광주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가 지난해 기준 동물 구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10일 광주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1월 운영 개시 이후 72종, 463마리 야생동물을 구조했다. 센터 개소 전 광주에서 부상·조난한 야생동물 구조와 치료는 자치구에서 지정한 5개 동물병원에 위탁했다. 연평균 120여 마리였던 동물 구조 건수는 지난해 249마리, 올해 현재 214마리로 늘었다. 조류가 41.4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포유류 45마리, 파충류 4마리 등이었다. 수달, 수리부엉이, 솔부엉이, 참매, 새매,

하늘다람쥐, 삵 등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위기종 동물도 14종, 77마리가 포함됐다. 구조 원인별로는 어미를 잃은 새끼가 213마리(가장 많고) 건물 유리창 등 충돌 137마리, 차량 충돌·쥐 끈끈이·질병 감염 등 48마리였다. 배설물 광주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장은 "야생 동물 번식기인 4~8월 중 어미를 잃는 동물이 많이 생기니 주변에 어미가 있는지 일정 시간 관찰 후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아파트, 도로 방음벽, 건물 유리창 충돌을 막으려면 버드세이버 필름 부착 등 대책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238억 이달 지급

전남도는 이상 저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농식품부가 확정된 피해 복구비 238억원을 6월중 지급하기로 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복구비는 지난 4월초 개화 중인 배, 매실, 복숭아 등 과수 이상저온 피해 8237ha와 마늘 생육기 고온으로 생리적 교란(벌마늘) 피해를 입은 644ha, 뽕은감 등 임산물 2707ha에 대한 복구비 238억원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과수 등 농작물에 196억원, 산림작물에 42억원이 각각 포함돼 있다. 농가는 피해 규모·정도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타작포 파종비용) 같은 직접 지원을 비롯 학자금·농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생계비 등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농약대 지원단가는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199만원, 채소류는 192만원, 50%

이상 피해시 지원할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19만원이다. 벌마늘 피해 지원은 전라남도 정부가 농업재해로 인정, 지원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가 반영됐다. 전남도는 피해복구비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비 부담금 35억원을 도 예비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으로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수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산팬 등 시설을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6월 6일 곡성, 보성, 순천 등에서 발생한 우박피해 176여 ha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정밀조사를 거쳐 정부에 복구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목장 허가·운영 전문기업

수목장 투자

신규 수목장 투자

2,000만원부터 투자 가능

예상수익

2,000만원 투자로 연 24% 수익
평생 소득 구축, 30명 한정투자

수목장 44.2%

화장 후 가장 선호하는 장례법

납골당 37%

산소 4%

기타 14.8%

수목장 14%

실제 이용하는 장례법

납골당 74%

기타 12%

자료 : 보건복지부

노후 준비 + 누구나 피해할 수 없는 장례준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

친환경 장묘문화(주)

전화 **070-5172-3090**

H·P **010-8431-5199**